

2022 오병이어선교회 / 통권 5호

풍수향서



SINCE 1986

오병이어선교회

오병이어선교회 거듭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엢 6:18)

올해로 36년(1986년 8월 창립)이 된 오병이어선교회가 재단법인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진행된 재단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와 설립허가(5월 10일)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선교사 관리뿐 아니라 국내외 세계관 교육 훈련과 선교센터 운영, 건강한 기독 세계관 인재 양성과 선교사업을 굳건히 해가며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선교회를 모체로 하여 2006년에 설립된 (사)위드와 계속해서 같은 비전으로 성숙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총체적 선교사역을 동역하고자 합니다.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인 (주)수양에프앤지가 회사 사옥건물을 선교회에 기증함으로써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했으며 그간 한결같이 헌신해 온 이용숙 오병이어선교회 초대 회장, 광미란 대표 그리고 각 나라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본부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COVID-19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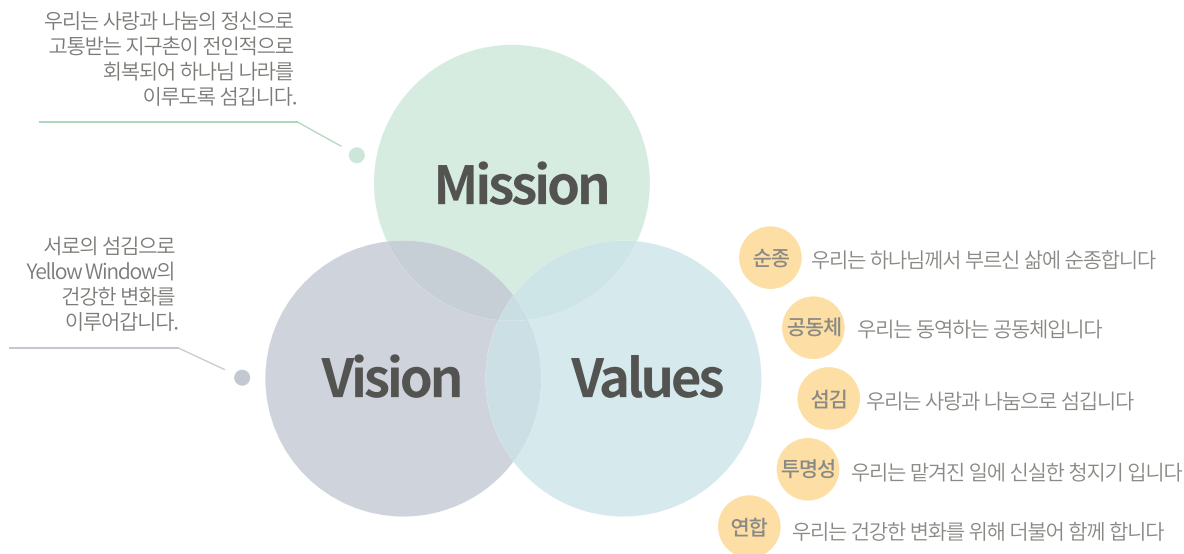
어려운 지구촌 환경에서도 주님 안에서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이와 교회 지도자, 정치인들, 교육자들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동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빈곤, 질병, 기아, 영양불량의 악순환,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건강한 변화와 회복을 돕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 선한 이웃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오병이어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단법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렘 2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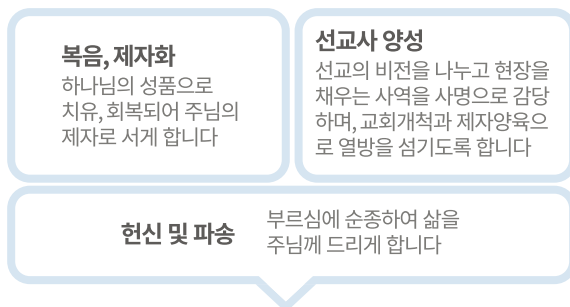
이영남 이사장(오병이어 선교재단)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막6:37)

오병이어선교회는 1986년 창립된 식품영양전문인 선교단체로서 선교동원, 훈련, 식품·영양의 상대적 저개발지역인 Yellow Window의 회복을 위해 총체적 선교전략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Mission Strategy 중점전략



총체적 선교

Contents

- 3 칼럼 이영남 이사장
- 6 선교사 파송 현황
- 8 오병이어 Perspective 광미란 대표
- 10 선교현장 이야기 '마다가스카르' 위드 대전세종지부 임진묵 지부장
- 12 선교기획 시리즈 위디국제선교회 문창선 대표
- 16 Yellow Window 알아가기 인도네시아
- 18 Yellow Window 정탐보고 인도네시아 박현주 선교사
- 20 국내현장 이야기 '몽골 아이뿐이(IFNee)' 몽골 박경희 선교사
- 22 오병이어 + People 정재균 | 김명희 후원자
- 25 보고 오병이어 선교회 「재단법인」 설립허가
- 26 오병이어 + News
- 31 오병이어 Gallery 위드 대전세종지부 공미순 간사



표지 |
박일화 후원자님
재능기부



©calli furaha(손주희)

<풍성해>는 오병이어선교회의
공식 회지 이름으로 연 1회 발간됩니다.

2022년 통권 5호

(재)오병이어선교재단	발행처
이영남	발행인
2022년 7월 31일	발행일
오병이어선교회	기획 및 편집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길 47 (서교동 442-5)	주소
수양빌딩 (03996)	
02. 322. 4630	전화

www.yellowwindow.org	홈페이지
www.facebook.com/yellowwindow52	페이스북
fngn_52	인스타그램

선교사 파송현황 (2022년 8월 현재)

보안국가

주은혜,
최갈렘/김수아(소망, 모세, 사랑),
천요한/유한나(사무엘, 자이넷),
김축제/김하늘(이삭)

비거주선교사

백기라,
윤정일/주범순(수아, 승언)

한재옥/레이존
(유니스, 베티, 갈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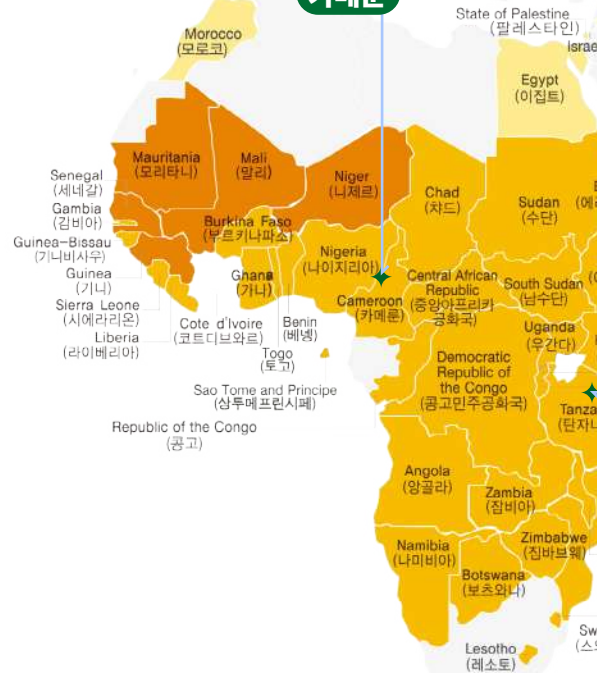
카메룬

Guatemala
(과테말라)

Haiti
(아이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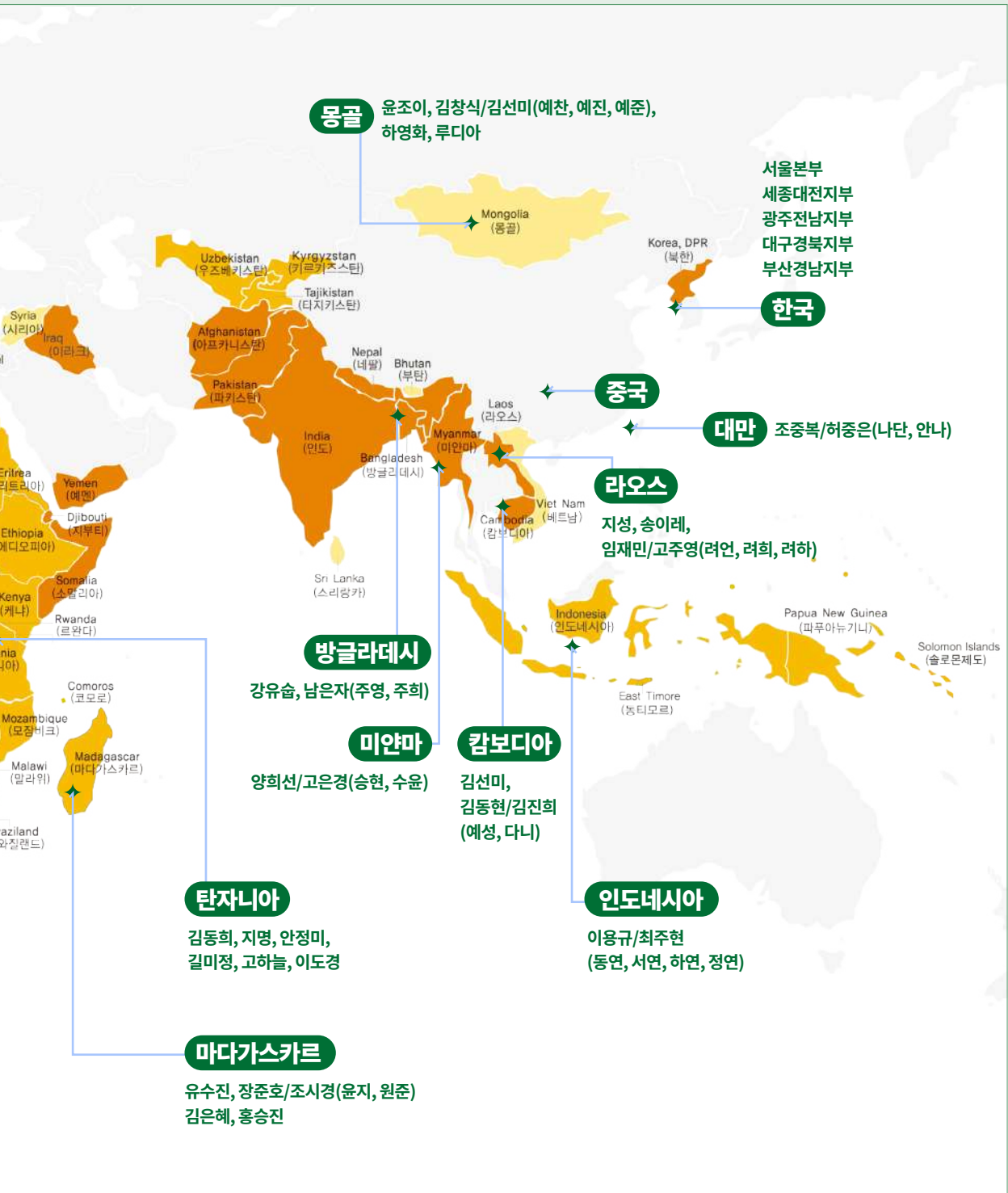
Guyana
(가이아나)

Bolivia
(볼리비아)



**Yellow Window는 복음의 소외,
굶주림과 가난, 영양불량의 악순환을 끊고,
전인적인 회복을 꿈꾸는 우리 이웃들의 땅입니다**

- ◆ 모성과 영유아의 심각한 영양부족을 해결할 긴급한 영양사업을
중심으로 한 최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한 **우선중점사업국가**
- ◆ 식량안보, 식수위생, 극빈곤층의 영양문제를 해결할 통합적 중재 사업이 필요한 국가
- ◆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영양부족과 영양과잉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장기적 개발 사업이 필요한 국가



오병이어선교,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곽미란
(오병이어선교회 대표)

오병이어는 아직도 젊은 청년입니다. 여전히 본부 사무실은 분주하며 늘 만나는 일들은 모르는 것이 많고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허겁지겁 어느새 은혜로 걸어온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은 많은 영역에서 적지 않게 쉽표를 강요당했으며 본부와 선교지는 새로운 방법으로 조정된 온라인 디지털 시대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상황, 선교지 사람들, 후원교회, 후원자, 자원들의 변화는 먼 후일의 변화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잇대어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초창기 오병이어가 창립될 당시에 창립자가 함께 나누었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동역자들과 두루 파고 거름을 주며 순종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은 공동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선교를 하셨는지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고비를 넘기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삶을 드리는 순종을 이어갔는지 귀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동시에 현재는 끊임없는 변화와 재조명을 통해 사역과 운영의 핵심 분야가 성경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새롭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사명선언문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 앞에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사

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빈곤과 굶주림의 고통 받는 이웃의 건강한 변화와 회복을 돕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며 제자 삼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는다」을 기억하며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2000년에 우리에게 분깃의 땅 Yellow Window를 선교 전략 지역으로 보여주셨고, 이후 2016년 총체적 선교전략으로 사역을 바라보는 Yellow Window Perspectives를 소개하였으며 계속해서 수정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Yellow Window Perspectives는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 관점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교육, 경제, 보건, 환경 등의 근원적인 영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그리스도 영성을 겸한 선교사리더십을 양성하고 통합적 중재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병이어 공동체 안에 선교전략으로 (주)수양에프앤지_비즈니스선교로, 위드영양개선연구소_영양 전문성으로, 오병이어선교회_선교 훈련으로, (사)위드_개발 NGO로 전략적 접근이 수행되도록 시간이 지나면서 오병이어가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발견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선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공의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기독교 세계관으로의 이 땅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 변화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병이어 선교가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올해는 비즈니스선교로 창업된 (주)수양에프앤지가 30년을 맞이하며 회사 소유인 사육 수양빌딩을 설립 목적대

로 오병이어선교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으로 기부하였고 2017년부터 모아온 오병이어 훈련센터 및 안식관 마련을 위한 기금 그리고 개인 후원자의 후원이 모여서 선교회가 법인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오병이어선교회 모체로 설립된 (사) 위드에서 선교회가 함께 활동해 왔던 것에서 오병이어선교회가 법인으로 분리 재정비를 하게 됨에 따라 기관별 정체성을 가지고 같은 비전 안에서 더욱 기능적으로 연합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회가 앞으로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하게 주력해야 할 것을 살펴본다면 선교사들의 영성 관리와 선교적 전문성을 위한 선교사 관리와 돌봄 사역입니다. 선교사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은 모든 사역에 기초가 되므로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회는 이를 위한 노력을 1994년 이래로 2022년 상반기 40기 전인공동체 학교(WCS)를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선교적 전문성을 위한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인 국제 영양 활동가, 식생활 개선 전문가 학교(NIS)도 병행 진행 해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더욱 ‘영성공동체’를 추구하며 교육훈련센터 및 안식관을 마련하여 공동체 영성훈련, 선교 훈련을 통해 사역자를 세우고, 선교사 재교육과 장기사역자들의 정서적 건강과 쉼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써 가족 영성공동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교사에 대한 관리와 선교사의 평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돌봄 전문성’ 측면에서 지혜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교현장은 선교회 본부가 주도하기보다 현지의 리더십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교지와 본부가 정기적으로 모여 선교지 상황을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

도록 온라인 디지털을 활용한 선교협력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오병이어 사역 중 강화가 필요한 것은?’ ‘그만해야 할 것은?’ ‘줄여야 할 것은?’ ‘새롭게 해야 할 것은?’과 같은 질문들을 선교사와 함께 수시로 점검하며 자가평가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장기적인 방향성을 민감하게 분별해 가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전심과 순종을 보십니다. 고난과 감수해야 하는 일들로 피하고 싶지만 결국 하나님의 설득으로 부르신 사역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공동체에 선물로 보내주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신에게 매이지 않고 공동체 부르심과 비전을 향해서 헌신하며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섬기며 큰 힘이 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가까이 사역을 하기에 때론 관계의 어려움으로 시험이 오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만만하지 않음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돕는 자를 보내시며 일하십니다. 도울 힘이 있어 돕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보내시어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이한 일들에 참여함으로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신비로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됩니다. 오병이어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선교는 오병이어 릴레이 선교로 우리의 분깃 Yellow Window의 건강한 변화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선교현장 이야기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

임진묵
(위드 대전세종 지부 지부장, 늘벗 학교 교사)

살롱!! 저는 위드대전세종지부장 임진묵입니다. 저희 가정은 작년 초에 마다가스카르로 파송 받았는데 그곳에서 11개월 간 선교사로의 삶은 참 놀랍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경이로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저희 부부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인데 그런 저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입국하는 모든 과정부터 작은 살림 하나하나까지 유수진, 홍승진 선교사님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피곤하실 텐데도, 매일 같이 저희 집에 들르셔서 잘 지내는지를 안부를 묻고 살피주시고, 챙겨주셨기에 저희는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섬김이 아니라 ‘너’를 섬김에 기준을 두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유수진 지부장님은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과 여러 사정에 의해 지부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떠난 상황에도 홀로 마다가스카르에 남아 계셨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교육사역이 계속 되려면,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홀로 지키셨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고백과 그 고백을 지켜낸 삶을 통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갑니다. 또한, 그 땅에 있는 어느 한국인들보다 현지어를 잘 하지만 계속 언어를 익히며, 매순간 모든 현지인들을 정성껏 대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현지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사랑을 삶으로 가르치는 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God is good

저희는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현지인 선생님 ‘피피’입니다. 늘 유쾌한 수업으로 저희 가족을 즐겁게 했던 그녀는 저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한글로 된 프린트까지 활용하며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수업에서 피피는 지난 며칠 밤 동안 한숨도 못 잤는데, 병원에 가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힘들겠다며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피피는 “God is good”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고산증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아프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런 시기에 아내와 저는 그 고백을 만나 심령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아픔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주셨다는 은혜의 고백을 저희 부부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선교지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을 통해, 그 선함을 깨닫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위드 마다가스카르 지부 식구들과

2.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임진록 지부장

3. 학생들과 꿈을 나누는 시간

4,5.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이웃과 함께하는 가까운 선교

문창선 선교사
위대국제선교회/WiThee |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

들어가는 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먼데 사는 사촌보다 이웃에사는남이 더 가깝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자주 만나고 정이 들어서이기도 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비유를 통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임을 말씀한다. 강도라고 함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강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나 불행, 육신의 질병, 가난, 소외 등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도는 대부분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객지에 거하는 나그네들에게 더 많이 닥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자. 누가 우리의 주변에 있으며 또한 강도를 만난 자처럼 신음하고 있는가? 문화와 언어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들이야말로 땅끝에서 온 나그네요, 우리 곁에서 신음하는 자들이요, 우리의 이웃이다. 그런데 이 땅끝에서 온 이웃, 곧 이주민들의 출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국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또 다른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움직인다

2020년도 1) 국제이주민 보고서(IOM)에 따르면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전 세계 이주민들의 흐름은 2억 8천만 명을 돌파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중 한국 디아스포라 약 750만 명이 세계로 흩어져 있다. 이들을 통로 또는 대상으로 여기며 한국 교계와 선교 계는 꾸준히 연계하여 사역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세상 끝에 있는 민족들이 Migrants Groups(이주민 그룹)로 모여져, 현재 203개국으로부터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정주와 비정주로 나뉘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현재의 COVID-19 상황에서 오히려 Value Chain(가치 사슬)의 결과로 사람들의 이동은 더욱 지속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Diaspora(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이 국내로 모여진 것에 대하여,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더욱 사역의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 그동안 몰려온 이주민들은 주로 아랍계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인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EU에 따른 동유럽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 교회는 그동안 이주민들을 위해 쉼터와 직업 등을 알선해주고 인권과 사회적 신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 퇴보, 이슬람 성장’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은 유럽에 정착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럽 교회들의 이주민 선교의 정책과 방법이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3차 로잔회의(2010.10) 같은 국제대회에서 가장 의미 있게 다루어진 토픽 중의 하나가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이다. 지난 2018년 4월에 미국 Orlando에서 Mission America Coalition(U.S. Lausanne)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미국에 있는 이주민(The Migrants)에게 선교해야 하는 당위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주민들을 통한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학의 기틀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인 로잔 운동 산하 디아스포라네트워크(GDN, Global Diaspora Network)에서는 2015년 8월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학의 초석이 될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결의안

- ° 우리는 이주민 선교와 사역의 정신을 성경으로부터 이끌어 낸다.
- ° 우리는 모든 민족이 그들의 민족성, 신분,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믿는다.
- ° 우리는 전 세계인의 이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창의적이고 구원적인 목적을 반영함을 믿는다.
이 세대의 빠르고, 증대된 이동은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반응을 필요로 하게 한다.
- °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며, 이에 이주민을 향한, 이주민을 통한, 이주민을 넘어서는 선교와 사역이 필수 불가결함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자들이 성경에 비추어 현세대의 표적을 읽어내어, 디아스포라 선교와 사역의 목적을 발전시킬 전조적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

로잔 운동 2010 케이프타운 서약서 정신에 기반하여 본 결의안은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특히 디아스포라 (이주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상상하고, 권한을 주고 재정비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국내 이주민(Migrant) 선교

1990년대 초부터, 한국에 이주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면서, 이주민 선교(Migrant Missions)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내 지역교회의 이주민 선교 참여는 일차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구제

차원의 선교를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선교 계는 특수선교 분야로 분류하고 다루어 왔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이주민들의 형태가 Blue Color와 White color로 구별된 근로자, 유학생, 국제결혼, 난민, 어린이, 군인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다양한 다문화, 다민족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고, 지역교회는 이들을 정주와 비정주 영역으로 나누어 사역의 전문성을 이루어가며 역 파송을 통한 선교의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주민 선교로의 사역전환

‘모든 교회가 다민족, 다문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 Mark DeYmaz, Ken Baker, Rodney Woo 등 미국에서 Multi-Ethnic(다문화주의), Multi-Cultural Movement(다문화 운동)의 선봉에 서있는 리더들은 모든 교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주의 확장을 요구하는 시대에 교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윤종 교수는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신 유목민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이동성’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신 유목민 시대는 자본이라는 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녀야 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그 경계는 국경이나 인종, 문화와 종교를 넘어서고 그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개념이 무너지거나 약해지면서 매우 역동적인 개념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다양성을 근거로 우리 시대를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설명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이주민의 정착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로 향하고 있으며, 그 추진력은 점차로 더 강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이주민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형태는 Salad Bowl(샐러드 그릇)과 Boiling Pot(끓는 냄비) 개념과는 다르게 Mosaic(모자이크) 개념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제3세계와 미전도 종족을 위해 왕성한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조사 및 발표를 맡은 2021 한국 선교 현황에 따르면 선교사들의 사역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 시키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국내 다문화, 난민(국내·외) 등이다.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 대상 비율로는 해외현지인이 82.5%이며 국내 이주민은 2.8%이다. 선교사 사역 유형에 대해 146개의 선교단체가 응답했으며, 여기에 소속된 선교사의 비율은 전체 선교사의 77.0%이다. 이 중에 국내 이주민 근로자 대상 379명, 국내 이주민 유학생 대상 342명, 난민(국내 외) 대상 214명, 국내 다문화가정 대상 190명의 선교사가 있다. 특히 임시 귀국하여 국내에 머물면서 국내 사역으로 전환한 선교사의 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 사역으로 전환한 장기 선교사는 응답 기준(146단체)으로 155명이 집계되었고 그중에서 국내 이주민(타문화)을 대상으로 사역을 전환한 선교사는 6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한 해만 고려한 것이며, 국내에 머물면서 국내 사역으로 전환 중에 있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선교사 수를 생각하면 좀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특히 이주민 선교는 선교지에서 귀국한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재배치를 통해 지속적인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풍성한 기회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단 선교부와 지역교회 및 선교단체들의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와 그들에 대한 선교적 접근과 실제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나가는 글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웨 신앙에 근거한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기며, 이방 국가들 혹은 이방인들과는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게르’라고 불리는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독특하게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이주민 신학과 선교학을 지탱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신약성경의 무명의 흩어진 사람들 이주민들은 절대적인 헌신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부흥과 확장의 주인공들이 되었다고 밝힌다(행 11:19-26). 마이클 그린은 “초기기독교의 부흥을 이끈 것은 완벽한 계획이나 훌륭한 지도자들이나 환상적인 전략이 아닌 무명의 알려지지 않은 헌신되고 용맹스러운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땅끝을 장소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민족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신 것을 지역만이 아닌 대상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이주민이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은 또 하나의 선교지임이 틀림이 없다.

4) Edward Michael Banks Green 초대교회의 복음전도(홍병룡 옮김, 복있는 사람)



Yellow Window 알아가기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명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독립 1954년 8월 17일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수도 자카르타(Jakarta)

면적 1,904,569km² (한반도의 약 5배, 세계 15위)

인구 2억 7천 5백여만 명 (한국의 약 5.2배, 세계 4위) (CIA 2021)

행정구역 32개 주(province)

위치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적도에 걸쳐 자리하고 있는 섬나라

언어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가 공용어

종족 자바족 40.1%, 순다족 15.5%,
기타 44.4% (300여 종족) (CIA 2010)

정치 대통령제 (임기 5년, 중임 가능)

경제 GDP per capita \$11,444.96 (2021)

종교 이슬람교 87.2%, 개신교 7.0%, 천주교 2.9%,
힌두교 1.7%, 기타 0.9%(불교 및 유교 포함),
불특정 0.4% (CIA 2010 추정)

교육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졸업률 | 102.0% (World Bank 2018)

15세 이상 문해율 | 96.0%(남 97.4%, 여 94.6%) (CIA 2020)



보건영양

기대수명 | 73.1세 (149위/227개국) (CIA 2022)

출산율 | 1,000명당 15.3명 (112위/228개국) (CIA 2022)

모성사망률 | 100,000명 출생 당 177명 (52위/184개국)
(CIA, UNICEF 2017)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 | 44.2%
(Global Nutrition Report 2019)

저체중아 출산율 | 10.0% (GNR 2015)

전적인 모유수유율 | 37.0%

(MoH Basic Health Research 2018)

영양불량 상태 | 5세 미만 아동·성장부진(stunting) 30.8%,
소모증(wasting) 10.2%, 저체중(underweight) 17.7%,
과체중(overweight) 8.0% (GNR 2019/CIA 2018)

5-19세 청소년 | 저체중(남 11.5%, 여 8.5%),

과체중(남 19.5%, 여 16.4%),

비만(남 8.7%, 여 6.1%) (GNR 2019)

18세 이상 성인 | 저체중(남 11.7%, 여 11.5%),

과체중(남 33.6%, 여 27.9%),

비만(남 10.9%, 여 6.3%) (GNR 2019)

만성질환 유병률 | 고혈압-남 24.4%, 여 23.0%

당뇨-남 8.8%, 여 8.5% (GNR 2019)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는 비율 | 93.3%

(도시 98.2%, 시골 86.8%) (CIA 2020)

위생시설 접근율 | 전체 92.5%

(도시 97.2%, 시골 86.5%) (CIA 2020)

기도 제목

1. 국가 지도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만연한 영양불량의 이중부담과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어 다시 악화해 가고 있는 식량 문제와 이로 인한 보건영양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소서
2. 기독교를 향한 차별과 공격들이 멈추게 하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는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이 정치·사회·문화 안에서 빛과 소금처럼 전달되게 하소서, 특히, 지역적·언어적 이유로 복음에서 소외된 종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예수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소망이심을 깨달아 회복되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Yellow Window 알아가기

우리 아이 좀 봐 주세요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 아낙 달람 종족 이야기

박현주 선교사
(인도네시아 예정통합총회 파송 선교사)

박현주 선교사 가정은 지난 2018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 사역을 하고 있으며,
아낙 달람 종족 영유아 및 아동의 영양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는지 땀에 흠뻑 젖은 엄마의 품에는 온몸이 뒤틀린 아이가 안겨있었습니다.

“우리 애 좀 봐 주세요”

한국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엄마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4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평소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3일 정도 지속하더니 두 눈은 초점을 잃고 몸이 뒤틀어졌다고 합니다. 아이의 증상은 소아마비였습니다. “제 때에 백신을 맞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저희는 엄마의 손에 비타민을 쥐여 드리며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를 안고 기도하며 함께 흐느껴 울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낙 달람 종족들의 상황입니다.

아낙 달람 종족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잠비 지역에 넓게 퍼져 생활하는 원시 부족으로 사냥과 수렵, 채취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1970년대부터 수마트라섬의 밀림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아낙 달람 종족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많은 아낙 달람 종족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 정부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낙 달람 사람들은 수렵 생활만으로 살아온 종족으로 채소를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낙 달람 종족의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국가나 같은 행정구역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제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현지 재단법인 미트라 스리위자야(YAYASAN MITRA SRIWIJAYA)에서는 한국 NGO의 지원을 받아 5개 지역에서 텃밭 가꾸기와 함께 약 120명의 아이에게 주 3회 영양지원 프로그램(단백질 공급원을 포함한 식품 2회 지원, 급식 1회 지원)과 보건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텃밭에서 자란 채소를 나눠주고 채소를 활용한 요리 교실도 진행하여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종알종알 오늘도 아침부터 숙소 앞이 시끌시끌합니다. 점심시간에 와야 하는데 아침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메뉴를 물어보며 식사 준비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밥을 먹을 때는 기도를 하고, 식사 후엔 정리를 돕고 양치하는 습관도 조금씩 자리가 잡혀갑니다. 사랑스런 아낙 달람 아이들이 제 때에 맞는 영양 공급을 통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어라도 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아이 좀 봐달라며 아픈 자식을 품에 안고 달려왔던 한 엄마의 애절한 음성이 아직도 귀에 남아 제 마음을 울립니다. 저도 그 엄마의 심정과 같이 아낙 달람 아이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봐주세요. 배가 고픈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주세요.”



1



2



3



4

1. 4살 아이 엄마와의 만남

2. 영양 프로그램

3. 농업선교의 일환인 텃밭 가꾸기

4. 어린이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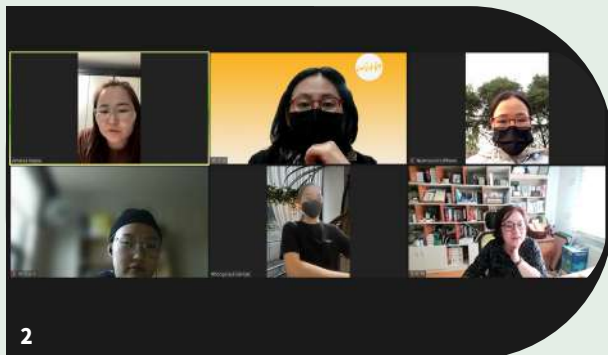
국내현장 이야기 ‘몽골 아이뿐이(IFNee)’

몽골 아이뿐이(IFNee, International Food and Nutrition+ee)는 국제영양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매 학기 국가를 정하고 알아보는 캠퍼스 모임의 명칭입니다. 2022년에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몽골 아이뿐이 모임이 시작되어 1월에 첫모임을 오프라인으로 갖고 4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골 아이뿐이 기대와 나눔

박경희 선교사
(후레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지난 2008년부터 몽골 후레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2010년 식품영양학과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몽골은 식품영양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로서의 식품영양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입생 모집이 매우 어려워서 한 학년 10명 채우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학과를 유지해 나가려고 많은 애를 써오던 중 학과 개설 후 10년이 지난 2020년에 형거르줄이 한국정부초청장학생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로 중앙대학교에 석사과정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다음 해 2021년 남수령, 바이르마, 앵흐게렐 3명이 한국으로 식품영양학 전공 분야로 석사과정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또, 4명의 학생 모두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입니다. 전공은 다르지만 먼저 한국에 가서 외식 경영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아므라, 줄라 등 몽골 아이뿐이들을 위해 올해 초 오병이어선교회 본부에서 학생들과 만남이 있었고, 올해 4월에는 줌으로 예배와 나눔이 있었습니다. 몽골 아이뿐이들이 한국에서 식품영양 석사 혹은 박사로 역학, 임상영양, 단체급식, 외식경영 등 각각 다양한 전공을 배우고 돌아와 몽골의 영양학계에 귀한 기둥으로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몽골 아이뿐이들이 오병이어와 함께 세계를 품는 영양학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몽골을 넘어 어려운 나라에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1. 남슈렌 졸업사진
2. 줌모임 캡처
3. 몽골아이들이 모임 사진
4. 바이르마 졸업사진
5. 엔흐게헬 졸업사진
6. 형거르줄 사진

하나님이 넓히시는 지경을 소유한 공동체

정재균 후원자

‘오병이어’를 처음 접한 것은 벌써 20년도 넘는 것 같다. 대학원 생활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도, 여자친구의 초청으로 마지못해 찾아간 대학 강의실에는 십여 명이 모여 있었다. 아마도 캠퍼스 모임이었던 것 같다. 그 모임을 주도하셨던 분들은 이젠 선교사가 되어 해외에 계시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내를 통해 보는 ‘오병이어’에 속한 사람들은 나에게 ‘미친 사람들’이었다. 멀쩡하게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넉넉지 않은 월급에도 밤낮으로, 주말과 휴일에도 자발적으로 일하고, 그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다. 그들 스스로가 ‘오병이어’가 되어 예수님의 손에 드러지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들은 하늘길이 열리기 전에 이미 몽골 땅을 밟았고, Yellow Window라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지경을 발견하고, 이제는 ‘스와힐리어 언어권’이라는 새로운 지경을 발굴하여 겁 없이 나아가고 있다.

누가 들으면,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사역이라고 생각할 법한 일들을 이루어 왔으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공동체이다.

이런 ‘오병이어’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기회가 된 것이 올 4월과 5월에 참여한 ‘40기 Duo WCS’이다. 세상의 중요한 기준점인 돈과 출세가 발걸음을 묶을 수 없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그리고 이를 잃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는 모습의 한 단면을 WCS 기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덕분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으로 나도 생기를 얻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스스로 ‘오병이어’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한, 생명의 떡을 열두 광주리 넘게 남도록 베푸실 하나님의 기적은, 더욱 넓어질 하나님의 지경 안에서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





1. 40기 Duo WCS 수료식 사진(정재균)
2. 믿음의고백 wcs 40기 산청 무지개
3. 정재균 간증 강의
4. 믿음의고백 wcs40기 강의실



삶 가운데 만난 오병이어 선교회 공동체

김명희 후원자

1996년 3월 초봄 어느 날, 몽골에 예비선교사로 다녀온 친구가 공장 시간을 이용해 1시간 정도의 기도 모임이 있다며 저와 친구 1명을 초대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을 계기로 오병이어 선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선교회’나 ‘전도’와 같은 단어는 제 삶과 무관하였기 때문에 점차 모임에 참석하면서 기도도 시키고, 교회도 나오라고 하면서 저를 압박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성경공부를 인도하시는 간사님을 따라서 오병이어선교회의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교회도 따라다니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WCS(전인공동체 학교) 훈련에도 참여하였고, 1997년 2월부터 (주)수양급식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오병이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수양급식은 사업체라 분주하고 바쁜 와중에도 아침마다 기도 모임을 하여서, 영적 미숙자인 저에게는 사회 속에서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주었습니다.

수양급식 사훈은 시편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1:3)’. 수양급식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오병이어 비즈니스 모델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오병이어선교회가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출연재산으로 수양에프앤지[(전)수양급식]의 사육인 수양빌딩이 기부됨에 따라 ‘여호와이레’로 본래 수양의 사명대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느끼며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병이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오병이어선교회와 수양, 전인교회, 워드, 영양개선연구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양하게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병이어선교회가 재단법인이 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1.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2. (주)수양에프앤지 사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나 길지 여릇 나 렴다 지을 은 여 여 자 서 솟
솟 은 못 罪人 는 지 亨 아 뻔 나 솟 그 호 리 지 지 있
스 여 하 스 이 거 압 통 니 으 무 로 律 와 에 아 아 는
의 호 리 이 家 와 음 하 할 며 가 다 務 의 앞 니 사 社
길 와 로 義 邦 갈 이 리 갈 그 特 저 을 律 지 하 하 칼
은 게 다 스 을 도 여 로 으 앞 筈 는 差 務 아 며 며 은 誦
은 서 太 의 견 다 오 다 니 사 을 시 夜 을 니 微 罪 愛
하 認 祗 舍 디 그 직 愛 그 귀 寵 냇 로 즐 하 慢 人 스
리 定 義 中 지 러 바 스 行 가 아 가 熬 거 고 한 의 의
로 하 스 에 못 으 글 은 事 마 루 에 禱 위 오 솟 길 외
다 시 의 들 하 로 에 그 가 르 帶 실 하 하 직 의 에 들

오병이어선교회 「재단 법인」 설립 허가 보고

오병이어선교회(초대회장 이용숙)는 식품영양 전문인 선교단체로 1986년 8월 25일 창립되었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 20주년을 맞으면서 공동체 분깃으로 주신 Yellow Window의 전인적인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총체적 선교로 섬기기 위해 오병이어선교회를 모체로 2006년 3월 25일 「곽미란, 김병성, 김철재, 남대현, 박준교, 양일선, 이영남, 이용숙, 이일영, 최성현」 이상 10인이 모여 (사)위드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2006년 5월 8일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 위드(초대 이사장 박준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 30주년에는 공동체 정체성을 위한 고유 목적을 재정비하였으며 오병이어선교회는 「비전 프라미스 2036」을 위드는 「위드지속가능 보고서」를 위드영양개선 연구소는 「Yellow Window2016 재설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오병이어 훈련 센터 및 안식관 마련」을 위한 기금 마련 후원회가 발족되어 공동체 영성훈련, 선교훈련을 통해 사역자를 세우고 선교사 재교육과 장기사역자들의 정서적 건강과 심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써 가족 영성공동체를 준비하고자 진행 중입니다.

올해 오병이어선교회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연합 기관인 (주)수양에프앤지(대표이사 이용숙)의 수양빌딩사옥 기증, 개인 후원자(송병민)의 재단 출연금 후원, 현재까지 오병이어후원회에서 모았던 기금 모두가 오병이어선교회 재단 법인 출연 재산으로 기증되어 지난 2022년 4월 5일 재단 이사회 발기인, 오병이어선교회 초대 회장, 오병이어선교사 대표, 해외선교위원회 대표, (주)수양에프앤지 직원, 위드 운영본부장, 팀장 및 국내지부 지부장 등 관련한 사역을 대표하는 32명이 온라인으로 모여 발기인 총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서울시 문화정책과로부터 재단 법인으로 「오병이어선교재단」(초대 이사장 이영남)으로 설립 허가를 받게 되어 오병이어선교회가 법인 체계를 가지게 됨에 따라 (사) 위드와 한 비전 안에서 각 기관의 고유 목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병이어선교회를 모체로 섭리로 인도하신 연합 공동체의 비즈니스모델: (주)수양에프앤지, NGO모델: (사) 위드, 연구소 모델: 위드영양개선 연구소 기관들이 오병이어선교회의 법인명인 오병이어 선교재단과 함께 Yellow Window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연합해 가길 소망 합니다.

(재)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회

2022년 5월 현재

이사장	이영남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이사	곽미란	오병이어선교회 대표
	김재철	씨엠코리아 대표
	오성호	수지 영광교회 담임목사
	윤향숙	오병이어 몽골선교사
	이일영	위드 명예이사장
감사	김대형	전 LG전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전 인도네시아 두란노교육재단 재무이사

2021 오병이어 뉴스

국내소식 및 광고

2021년 7월 1일 ~ 2022년 7월 31일

WCS 전인공동체학교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부름에 응답하는 WCS 전인공동체학교가 2021년에서 2022년에 걸쳐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39기는 탄자니아 음베야에서 4명(2021.10.25.~12.15.), 40기는 경남 산청 만들레공동체 수양관에서 Duo 3가정이(2022.4.4.~5.13.) 훈련생으로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생들 모두가 각자 발견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

식품 영양 관련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가 22회를 맞아 2021년 10월 30일(토)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BMI 혁신그룹의 조재현 그룹장의 '코로나 시대 외식산업 동향' 주제 강연과 임상 영양(박민영), 급식 관리(우은열), 식품 개발 및 마케팅(김윤혜), 국제보건영양(우지성)의 네 분야 강사들의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식품 영양 관련 학과 학생들의 준비된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선교사 파송

김동현·김진희(예성, 다니) 가정이 캄보디아로(2022.2.17.) 파송을 받았고, 고하늘·이도경 간사가 탄자니아로 인턴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2022.5.3.).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와 관심으로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영양활동가 온라인 교육과정 진행 (30, 31, 32기)

국제영양활동가 과정이 온라인 교육과 현장 대면 실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30기(2021.9.25.~11.6.) 6명, 31기(2021. 12.8. ~2022.1.29.) 3명, 32기(2022.5.7.~6.4.) 2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라마나웃 Yellow Window 모임 스와힐리어권 자료집 발간



2021년 8월 7일 위드영양개선연
구소에서 스와힐리어권 자료집인
「갈렙리포트 줌인 스와힐리」 1, 2
권을 발간하였습니다.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권 12개국의 지역, 영
양, 복음 이슈와 함께 총체적 접근을 위한 통합 중재 방
법인 학교급식, 비즈니스,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정
보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Yellow
Window 라마나웃 기도회’에서 진행된 내용을 바탕
으로 정리된 별책부록 「Yellow Window 라마나웃 기
도자료집」과 함께 오병이어선교회 35주년을 맞이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몽골 유학생 아이뽀이(IFNee) 캠퍼스모임

한국에 있는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이뽀이 캠퍼스’ 모임이 네 차례 진행되었습니다.(1.28, 4.27, 5.25, 6.29.). 본인 소개와 근황 나눔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진로와 비전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2022년 세계시민교육 'Junior 국제활동가 학교' 과정

세계시민교육 ‘Junior 국제활동가’학교 과정이 2022년 KOICA 세계시민교육 혁신 사업으로 선정되어 3월 25일 옥련여자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동아리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고등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및 실습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을 위한 멘토링 활동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36주년 감사예배

2022년 8월 25일(목) 저녁 7시에 오병이어선교회 36주년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36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기모임

IFNee(International Food&Nutrition)

아이뽀이 캠퍼스모임 | 국제 개발, 보건 영양,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스터디, 식문화 체험, 예배 등을 하는 캠퍼스 모임이 매년 상·하반기 학기 중에 열립니다.

직장부 모임 | 기독교 식품 영양 관련 직장인들의 모임입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지부 모임 |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지부에서는 매월 1회 라마나웃 스터디, 세계관 스터디, 책 나눔 등으로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 오병이어 뉴스

해외 소식 및 광고

2021년 7월 1일 ~ 2022년 7월 31일

몽골 Mongolia

몽골 '코로나 시대 영양급식관리 및 서비스' 세미나 개최

2021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유치원, 학교, 병원의 영양급식관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의 영양급식관리 및 서비스'라는 주제로 몽골에서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성산초등학교 최숙희 영양교사, 아주대학교병원의 이혜경 파트장이 온라인 강의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148명의 몽골 영양급식관리자들이 참여하였고 한국에 가지 않아도 현장의 내용을 몽골어로 들을 수 있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몽골과 한국 사이의 온라인 국제학술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몽골 학교급식영양사 인턴십 과정 진행

몽골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급식영양사 인턴십 프로그램(SFDIP : School Feeding Dietitian Internship Program) 과정이 COVID-19 확산 시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와 현장 실습 과정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본 과정은 상반기에 강의와 세미나, 하반기에 실습을 진행하여 모두 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몽골 읍스 영원한 사랑교회 보수공사 진행

9월부터 11월까지 몽골 읍스 영원한 사랑교회 내 화장실 및 낙후된 천장 보수와 전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예배당, 식당, 화장실, 세미나실의 공간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방 시설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COVID-19 상황으로 한동안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새롭게 단장한 예배당에서 다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해 봅니다.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저마다의 꿈마다' 교육 사업 선정 및 지원증서 수령

삼성꿈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국외 장학 사업(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중 '아프리카 교육사업발굴 프로젝트'로 '저마다의 꿈마다' 교육사업이 3차연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사업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다가스카르 비나 전시회 개최

7월 17일 마다가스카르지부에서 비나 전시회가 두 번 째로 열렸습니다. '저마다의 꿈마다' 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로 전시회를 열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하는 노력이 담긴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성탄절의 마마 큰잔치

12월 18일, 22일 양일간 경제적 어려운 마다가스카르 안카디부리 지역의 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을 말씀과 찬양으로 나누고 선물로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려하며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구제 사역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간 마다가스카르 빈곤 지역 Alakamisy Ankidonona(알라카미시 안키두누나)와 공립초등학교 3곳(Amboasary (암부아사리), Ambohitrinbe (암부이트린베), Ambohinanjakana (암부이난자카나)에서 COVID-19 구제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고 가운데 있는 가정에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굶주림으로 출석을 저하 및 학업 지속,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구제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과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Cambodia

캄보디아 영양불량 취약자 대상 영양 상태 평가 조사 실시

캄보디아 지부에서는 영양불량에 취약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중간 사업평가 조사하기 위해 신체 계측과 설문 조사를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9명의 신체 계측 요원이 7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8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27일간 6명의 조사 요원이 336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조사 후 영양불량 취약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에게 영양 보충식을 제공하며 일대일 영양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COVID-19 긴급 지원 사업

오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마다가스카르에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긴급지원 2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구호 물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참여 해주신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 함께하기



함께해 1 | 선교사 / MK 후원

오병이어 선교사 및 선교사 자녀를 후원 합니다. 선교사 전용 후원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02-322-4630 선교사관리부



함께해 2 | 해외장학 멘토링

가난으로 꿈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꿈 찾기 멘토링을 선물해 주세요. * 꿈나무, 1만원 /월
신한은행 100-036-02716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_입금자명_멘토링000



함께해 3 | 사역자 (현지인 사역자 생계비) 후원

준비된 현지인 사역자 후원은 선교사 한 가정의 파송 효과입니다.
현지 사역자 사례비 20만원 /월

신한은행 100-036-02716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_입금자명_사역자000



함께해 4 | 오병이어 사역후원

YW 지역의 건강한 변화와 회복을 위해 우선 긴급한 필요 재정으로 사용됩니다.
신한은행 100-035-952967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함께해 5 | 오병이어 하우스

오병이어 훈련 센터 및 안식관 마련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세요.
공동체 영성훈련, 선교훈련을 통해 사역자를 세우고, 선교사 재교육과 장기사역자들의
정서적 건강과 쉼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써 가족 신앙공동체를 준비합니다.
신한은행 100-036-02719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작정하심 | 공미순

주님은 미지근하지 않으시다.

언제나 작정하신다.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하시기로.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사 사용하시기로.

고난을 통해서라도

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다.

고난의 끝이 고난이 아니며

광야를 허락하신 뜻이 광야 자체가 아님은

그것이 주님의 작정하심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고

열매맺을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

사랑받아야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다.

영원히 살리시며 영원히 행복하도록.

주님이 마음을 정하셨다.

오병이어선교회

지	금	여	기
우	리	함	께
나	누	어	요

(재)오병이어선교재단 후원 | 신한 100-035-952967



홈페이지

www.yellowwindow.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yellowwindow52



인스타그램

[fngn_52](https://www.instagram.com/fngn_52)



유튜브

<https://url.kr/2uflmb>



오병이어선교회

Food & Nutrition for Good News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의 건강한 회복과 변화를 위한 총체적 선교로
「오병이어선교회」와 「위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연합합니다.